

금추일언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
린, 얼굴이 빛이 꽃과 같
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색하고 질투하
며 거짓꾸미는 자는 말과 행실에 어긋남이
있다 (법규경·봉지훈 379절)

東大新聞

발행인: 김추일
편집인: 김추일
주필: 김추일
편집: 김추일
출판: 김추일
등록: 김추일
석쇄: 김추일
구분: 김추일

서울: 100-715 서울시 중구 경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주: 경주시 석장동 707 ☎(0561)770-2057



히말라야 다올라기리 1봉 정복 본교 산악회 국내 최초로 이룬 쾌거

본교 동국산악회(회장=김경준·김
퓨터공)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8일
까지 진행된 히말라야 다올라기리 1봉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 최초로 히말라야 다올라기리 1
봉을 정복한 이번 원정은 산악회 창립
40주년 및 본교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다올라기리 1봉 원정은
박영석(체육 01출)대장을 비롯해 김대

학생처 주관, 모교방문 행사 큰 호응 오는 23일 춘계 명찰순례 실시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과가 실시한 '재학생모교방문' 행
사에 약 5백여명 학교 1천여명의 학생
들이 신청,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 행사는 지
난해 9백 99명 학교, 9백 여명이 참여
했으며 이번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과 문옥래 과장은
"홍보보다는 지난 해 다녀온 학생들의
행사 의미에 대한 자체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이 행사를 본교 전통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학생과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 능가산 내소사로 제 7회 춘
계 명찰 순례를 다녀온다.
하루동안의 산사생활을 통해 견학
이념을 배운다는 의의로 진행되는 명
찰 순례는 선착순으로 75명만 신청을
받으며 회비는 1만원이다.

"각종 증명서 한 곳에서 뚝 수 있다" 정보매체 센터 건립 확정

전용건물 건설로 복잡한 학생식당도 종지부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보매
체센터와 '식당전용 건물' 건립이 확
정됐다.
현 역경원과 공대 농구장 자리에 지
어질 '정보매체센터'는 건평 2천 1백
5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
어질 계획이다.
'정보매체센터'에는 학생편의시설로
각종 증명서 한 곳에서 뚝 수 있는
사실을 갖춘 종합민원실과 역경원및
정보산업과학대학이 위치한다. 정보산
업과학대학 시설로는 강의실 10개, 실
습실 10개, 교수연구실 15개, 세미나실,
영상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교는 오는 6월말경 설계가 끝나고
8-9월에 공사가 착수되면 98년 말쯤 완
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감안
하면 학생들은 98년초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당전용건물은 건평 1천 1백
50평 지상 3층규모로 과학관 뒷편 현
은실자리에 세운다.
1.2층은 학생식당으로 3층은 교수식
당으로 사용될 예정인 이 '식당전용건
물'은 연면적의 일시 수용이 가능하다.
'정보매체센터와 '식당전용건물'의
공사비용은 각각 약 50억원, 22억원으
로 추산되나 설계가 끝나고 공사입찰
후에 정확한 비용이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과 이창진 과장은 "학생수에 비
해 부족한 식당과 강의실문제는 전부
터 확충 필요성이 인식·제기 되었다"
고 밝히고 덧붙여 또한 '남산 제모

행정대학원 학술 세미나 개최

행정대학원(원장=이홍우·경찰행
정학)은 오는 22일 신라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30년 전
통과 경험을 토대로 한국행정의 새로
운 이미지와 비전 제시를 위해 '2세
기 한국행정의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 1주제는 '문화의 시각에서 본
한국정치의 민주화'로 본교 정의과 정
용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자
는 고려대 행정학과 백완기 교수이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윤재홍 교수, 연
세대 행정학과 이상수 교수가 토론자
로 나온다.
제 2주제는 '정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리엔지니어링'이란 주제로 서울
대 행정대학원 강신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Tennessee State 대학
Arie Halachmi 교수이다. 토론자는 서울
대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 본교 행
정학과 이영우 교수이다.
제 3주제는 '한국정부의 경쟁력과
주요국 행정개혁의 벤치마킹'이란 주
제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김동현 교수
가 사회를 보고 본교 행정학과 김번용
교수가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고려
대 행정학과 인문석 교수, 순대회 KDI
국민경제연구소장이 나온다.

문화예술대학원 '정통 우리춤 대공연'

문화예술대학원(원장=홍은식·역
사교육)은 오늘(19일) 오후 5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정
통 우리춤 대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법우스님, 김영자, 박소
림, 유숙희씨를 초청하여 중요무형문
화재인 이매방류의 정통 춤사위를 통

연구교류처 교원 해외연수 지원자 접수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학
술교류부는 오는 23일까지 98학년도 1
학기 교비특별기금에 의한 교원 해외
연수 지원자를 접수한다.
이번 특별기금에 의한 해외연수자
는 서울, 경주 통합 5명을 선발하는데
이들은 6개월간 본인이 원하는 국가에
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간중
지급되는 월급과 수당은 물론 왕복항공
공료와 월 1천달러의 체재비를 지원받
게 된다.
학술교류부 임영진 부장은 "이번 해
외연수자는 교수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연
구 체류지에 대해 "교수가 원하는 곳
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만큼 자율
적인 연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6개월기간을 마친 연수자들은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귀국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회 총장배 테니스 대회
본교 테니스 학생회(회장=구희진·
자연과학부)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3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식은 오늘 오전 10시 본교 코트
에서 치러지며 대회장소는 본교 코트
와 태워호텔코트이다.
경기종목은 남자단식A조, 남자단

보리수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였던가. 목백산 동국의 오월은
참으로 희망이 넘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신념과 문화
예술의 향기충만한 계절이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이 차례로 캠퍼스를 아름답게 수
놓고 짜릿한 향기로 마을의 번거를 씻어주며 지나가는 뉘를 이
어 리일락, 아카시아 향기가 짙고 달콤한 꽃맛을 날려오는 아
름다운 오월, 개교기념일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각종 법회와 축
제는 동국의 오월을 더욱 빛나게 한
다.
동국의 프락을 아름답게 수놓은
연등은 목백산의 어슴프레한 밤모습을 엄숙하고 적정한 분위
기에 은근하게 깨어나는 시상을 한층 일깨워 준다.
비탈이 살랑 불어 하얀 빛꽃이 눈으로 훑날리고 아카시아
꽃잎이 향기를 싣고 사뭇히 내려와 땅을 덮으면 하얀 바다에
주저앉아 낙화와 함께 놀고 싶어라.
녹음이 짙어지는 오월 말쯤이면 푸르름이 밟길 어려워지고
목백대동축제가 한바탕 젊음을 발산하게 된다.
풍라리, 장구, 징, 북소리는 잠자던 목백의 지신을 일깨우고,
젊은 동국인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화합의 노랫소리는
하공을 깨고 구천에 메이리친다.
동국의 오월은 학문적으로도 가장 풍성한 달이기도 하다.
연구소나 다 학술세미나가 줄을 잇고, 각 학회의 활동이 활발하
게 펼쳐진다. 수학여행과 학술답사도 대부분 오월에 시행된다.
오월은 참으로 풍요로운 달이다. 그러나 자못 의외에 이렇
게 열렬한 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출지도 많지도 않고 기운
과 습도가 가장 알맞은 오월에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정성을 마음껏 담아보며 열심히 공부하기에 가장 좋
은 시기이다.
오월을 보내며 나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도
록 하자. 깨달음은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고, 현재의 한마음에
서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를 고쳐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
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동국의 오월, 꽃과 잎이 피고 향기가 퍼지며 마음이 열리고
젊음의 세계가 새로워지는 이 순간, 벌써 97년도 5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는 한번
쯤 되새길 때가 아닐까.

이법산 불교학부 교수

이법산 불교학부 교수
이법산 불교학부 교수

모 집 안 내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취재·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장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5월 28일(수) 오후 5시까지
- △전형방법: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
② 면접
- △면접일시: 서울-5월28일(수)오후6시
경주-5월29일(수)오후6시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서울:260·3492
경주:770-2057

**수습 기자
모집광고**
⑤

이미 그릇의 모양이 정해졌다면 이젠, 무엇을 담을까 고민하십시오

동대신문사에서 그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족적 비극의 현실 젊은 지성인이 극복하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모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정치·경제의 제도적인 습성과 한국인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잘못 결합되어 파생된 고질적 악순환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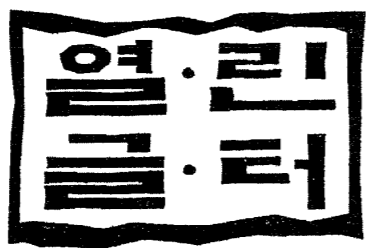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후기에서 현재까지 서양적 물질 자본주의와 동양적 사고방식이 서로 뒤엉키면서 물질 자본주의가 우세하게 되고 정치, 경제모순이 여기에 부합하여 한국인이라는, 지금은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닌 국적불명의 한국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다같이 살아갈 우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일뿐이다.

이 현실은 복에서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처녀들이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며 시대적 착오가 빛나는 민족적 비극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만든다.

공중재는 전혀 생각지 않는 모습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다국적 기업의 소비시장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모두들 두 손들고 방관만 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경제·사회체제 위기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뛰쳐나와서 사회를 고발하며 탐구하여 한국의 고질병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경주 캠퍼스의 총학생회 위기를 보면서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쌍



문의는 (02)260-3491 · 2 (0561)770-2057 · 8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 (CGU9번방, ID:gdpress 메일)과 여론팀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방 공격적인 태도를 깨어야 할 우리 지성인이 왜 지지분하고 더러운 기성세대 추태를 물릴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한국의 경제와 정치, 사회의 전반에 매우 커다란 혼돈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젊은 지성인은 깨어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옛 우리 고구려인의 아나톨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점유하는 일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문 찬 호 (성경대 관광경영학부)

아시아지역 학부에게 관심과 참여를

동국관 앞. 20~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뭐라 외치고 있다. "자치공간 확보하라! 확보하라!" 아시아지역학부 학생들이었다. 옆에선 쪽구를 하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학생들이 무덤덤하게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 넓은 동국관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게까지 한다.

인간학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단 몇 명짜리 학생회실이 있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선·후배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도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학생회실. 그곳에서 불렀던 친구도 알고 등기도 일제 되는 것인데, 아시아 지역 학부생들은 그 공간이 없어 서

서히 흩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책임은 누가져야 한단 말인가? 아니, 누군가 책임을 진다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정말로 어기가 없다. 어떻게 화과는 있는데, 학생회실이 없단 말인가? 철저한 준비 없이 학부를 신설한 결과라고 단정만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학교측과 야촌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지금에 와서 각각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어느 한쪽의 잘못이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급한 것은 타협의 결과물이다. 학교측과 야촌은 한시라도 빨리 해결점을 찾아 동양 곳곳을 방황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학부학생들에게 학생회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시아지역의 빠른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또 한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학부, 학과생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지나가면서 어... 제네 아시아 애들구나... 하는 시의 무관심은 학생회실 획득을 말케만 한다. 선배 한명 없이 갖 입학한 새내기들이 단독으로 이를 성사시키면 그들의 힘은 너무도 약하다. 동국인들의 말 한마디, 작은 격려, 작은 참여가 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문득 지난 몇해동안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투쟁하던 선배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훗날 선배가 될 아시아 새내기에게 모두가 힘을 주었으면 한다. "아시아, 화이팅!"

홍기원 (사대대 신방과)

인격적 사랑이 찬란한 사랑

대학시절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랑일 것이다.

향후 진로도 문제가 크지만 그 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주는 쾌락과 행복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화된 사회가 되면서 몸을 여는 젊은이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마음을 여는 젊은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사랑이 흔해진 만큼 사랑의 아픔 또한 흔해져 버렸을지 모르겠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부터 사랑은 불장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성냥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어린애들은 꼭 그것을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부터 사랑은 불장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성냥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어린애들은 꼭 그것을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사랑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힘이지만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노력하는 삶이 될 아시아 새내기에게 모두가 힘을 주었으면 한다. "아시아, 화이팅!"

홍기원 (사대대 신방과)

학생 편의 위한 효과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김영환 (법정대학 행정학과)

학생 편의 위한 효과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짧은 봄을 지나 어느덧 여름이 우리 가슴을 노크하고 있다. 길지 않은 대학생활이었지만 캠퍼스에서 종종 보이는 몇가지 문제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선 최근에 들어 부쩍 관심을 끌고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것 같다. 명진관 뒤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고, 여러 식당에서도 음식 쓰레기, 폐수 등을 마구 버리고 있다. 환경이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점은 지성인들의 배움의 터인 대학에서부터 앞장서 지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물관에서 느낀 문제점이다. 며칠전 학교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박물관에 가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구경한 것은 화장실과 텅빈 경비실 그리고 굳게 닫힌 셔터가 전부였다. 학교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학생들을 위해 언제나 개방되어야 할 박물관이 문을 닫아버린채 있구나...

나 어찌구무가 없고 허탈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박물관 이용도가 낮은데다가 하지만 학교 측은 박물관의 학생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투자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대학만이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여타의 민간한 문제는 적당히 참고 넘어가더라도 학교의 경우 사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점심시간인 한시쯤에는 식당이 학생들로 꽉 차 이용할 때쯤이면 정말로 난감하다. 이는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 시설들이 파손되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 놓은 명성이 이번 원정에 조금은 부담이 되었다는 김현상군. "선배님들 못지 않는 후배가 되어주세요"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그는 "힘든 일을 잘 안다면 세대에서 그런지 97학번 새내기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학을 언제 졸업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많은 동국인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싶어요"라고 작은 소망을 밝힌 그는 동국 산악회의 모든 동반자 주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을 사랑하는 선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에게서 진정한 알프스인(Alpinist)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식으로 받쳐주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화장실의 보수공사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측은 이를 배려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홍석진 (공과대 한국어문학부)

대동제 통해 진정한 대학문화를...

오는 21일부터 내가 1년을 손 꼽아 기다리던 대동제가 시작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까닭은 작년과 다르게 흥을 돋우려는 마음 때문이다. 작년과 다르게 흥을 돋우려는 마음 때문이다.

나 역시 작년 대학에 입학해 처음 갖는 대동제에 갖은 설렘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위의 후배들을 보며 벌써부터 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며 떠들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새내기때 나는 고등학교때와는 다른 대학의 문화가 대동제를 통해 모두 응집해 나타날 것이라 믿어 동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축제(?)의 분위기를 느껴 보려고 애썼다. 그렇게 느껴보려

고 했던 대학의 문화는 커녕 제대로 된 축제 분위조차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술을 마시고 집에 가지 않은 것과 이제는 수업이 있어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축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대동제 기간이라는 것에 얽매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친구들과 할 일 없이 동안을 방황해야 하나 하며 행사가 집중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이제 내게 두 번째 대동제가 다가왔다. 역시 이번에도 난 작년과 느끼지 못했던 대학문화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재미없다는 대동제지만 나 자신 나름대로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 가면서 축제를 즐겨볼 생각이다. 내가 만드는 행사처럼.

처음에는 무엇도 모르는 신입생으로서 서 맞이하는 대동제였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지난해에 얻지 못했던 대학문화를 흡수시키고 싶다. 또한 후배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김옥주 (사대대 국교과)



자기 대통령은

▶대머리(털빈) 통치는 영영 없어지길... ▶뚝통은 있되 깃털은 없는 통령을 원한다.

▶정직한 사람이요. 우리질 열쇠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열쇠를 돌려라) ▶노동자 대통령.

▶반드시 자신이 없는 사람. 특히 차남이 없는 사람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기운있고 친화적자랑으로 물려드니 그것이 풍수지리학상 불 "홍"의 배아날 "수"자를 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디펜던스데이"의 대통령(응기 있는 사람)+ '대통령의 연인'의 대통령(정미 있는 사람)+ '성실스님'(정직한 사람)+ '슈퍼맨'(힘있는 사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냥 내각제나 하지. ▶자기 대통령은 차차 기다려 봐야 한다.

▶더 이상 삼킬 돈이 없는 재벌 회장님이 적당하다. ▶'자기'대통령은 공 '자기'나 자기 '자기'로 정합시다.

- ▶박찬한 대통령 화이팅!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박태준 α 이인제-회람사랑 ▶김일사(一四) 김이오(二五) 김삼육(三六) ... 김일상당선 ▶김현철(가수)이 될 듯 싶다. ▶이제는 바벌 때가 왔습니다. 이 '인제'당신이 하시요. ▶영원한 민중후보 백기완 선생. ▶대통령은 용병수입 안 되나요? ▶나. ▶"싸는 살아. 아무나 다 '돈' 많은 사람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외 지역 정당 후보. ▶선거 때마다 군대 분위가 조이지 않는 사람. ▶나한테 1억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매누리도 몰라. ▶金大中. ▶윤준현은 절대로 안됨. ▶영국에서 시작한 기가 미국을 거쳐 홍콩으로 물러와 우리나라의 남쪽지방으로 물려드니 그것이 풍수지리학상 불 "홍"의 배아날 "수"자를 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오슬길 동국 산악회 김현상(철4)군

"정상에 오르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아요"



등반이유를 묻는 이에겐 한 산악인인 그랬다. "그 산이 거기에 있어서 올라간 것 뿐" 이라고... ▶그렇다면 한 꼭대기로 다음날이 1봉 등반을 정복하고 내려온 본교 철학과 4학년 김현상군은 어떻게 대답할까. "산이 좋아요. 산을 오르면 오솔밭의 고향만큼 보람이 생기잖아요. 또 정상에 오르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배시시 웃는 그는 조금 그늘진 얼굴 빛 속에 이만 하얗게 반짝인다.

동국 산악회 창설 40주년 및 본교 개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1봉 등반에는 박영석(제과 01졸)대장을 비롯해 김대원(행정96졸), 김현상(철4), 정광호(마생물)군등 모두 4명의 대원이 참여했다. 비록 김대원, 정광호 두 대원이 고소 고중으로 인해 정상정복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한국 최초'라는 자랑스런 타이틀을 목에 걸었다.

김현상군이 활동하고 있는 동국 산악회는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대학 최고의 산악동아리이다. 현재 다울라기리 1봉, 에베레스트,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초오유, 시암파 등 정복한 동국 산악회는 본교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천6년까지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의 고봉들을 모두 오른다는 야

동/약/광/장

Table with 2 columns: 다문화 상담, 동국관 학생상담, 교직원상담. Lists names and phone numbers for various counseling services.

온방골

5월 28일은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연왕선배의 피소식이예요. 축하해 주세요. -97성미,영주,미라,은정,지영,은경 ▶현숙, 효석, 은진, 윤진, 은정, 병규 성인이 됨을 축하하며...

목욕골

축하합니다

- 5. 22 그녀와의 100일임을 전국민에게 알리니 그대들은 모두 축하하라! ▶됐다! 국문 관인(國人)! 제일기 확 공모전 입선 축하해! ▶5월 9일 준수 생일이었어요. 국문과, 한국어문학부 사람들 평평 축하해 주세요. ▶나, 준수 아남 ▶5월 23일 문과대 어느 한 여학우(사학과) 생일을 축하하며... ▶5월 18일 인민영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문학부 원기부 ▶푸우야, 생일 축하해! ▶사과 96 수연언니 ▶14일 현석아, 16일 윤우 생일이에요. 왕 추키! ▶병이리 ▶93 병철선배(5/25), 97 재환(5/24) 생일 축하해요! 만수무강 하시길... ▶복싱 ▶돈만 많은 총무 재연이의 생일을 축하 축하 왕 축하. ▶호우인 ▶늦었지만 종현이의 생일과 성년식을 축하해요. -96 동기사랑 나라사랑 ▶나의 동기 화정의 생일과 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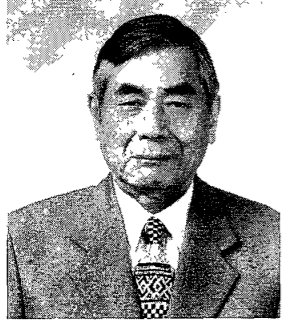
사를 축하해요. 그리고 화정아, 오빠랑 오래 오래 행복하길... ▶사과계열 96 수연 ▶조나단을 기리는 구교관, 이번엔 진차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비탈소리나들 ▶바람소리 9기. 처녀비행을 축하합니다. ▶바람소리 9기. 처녀비행을 축하합니다. ▶8기 ▶우리의 이번 꿈들이 왕우리의 생일(18일)을 축하해용. 우리야, 어서어서 멋진사람 만나 행복해져라! ▶정환이와 정미인의 방송출연을 축하한다. -누굴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전 수리조 너무 많은 노력! 감사합니다. ▶95 오아성 ▶머릿돌 볼 모포지 잘 다녀왔습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머릿돌 ▶광고기획팀 지원, 신안. 2주일동안 수고했다. 다음 레포도 부탁한다. ▶96 개똥이 ▶형숙, 영조 수고했다. 너희들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96 경성 가림(미스터 박) ▶열심히합시다 ▶산하 공연 잘하러! ▶할애비 ▶27일 공연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아리랑 사람들이 힘내라우! ▶통노한, 판관 경영대회 준비하는

라 고생한 동노협장님과 단풍준장님! 마리아까지 잘해 봅시다. ▶92대 자유주 총학생회 문화국 ▶캐생 여러분, 정립제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앞으로 더욱더 잘해보자. 화이팅! ▶회계 91선배가 ▶그리고... ▶아시아지역 학우 여러분! 기초확습권 생취투병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세요. ▶아중 94선배의 많은 학우들이 ▶네가 늘 내 곁에 있어주었음 좋겠어... 1177155400 ▶내가 ▶0907아!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스쿠프 ▶C.J.S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끊어아 한다. 후후. ▶이제야 작년군... 미화니나 지났지만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멋쟁이 ▶재발 수업시간에 문 잠그지 마세요! ▶정수아, 희자는 입자있어! ▶무역 94 ▶신방과 여러분, 모두 환상적인 대동제! ▶신방을 무지 사랑하는 이가

다. 많이 먹고, 많이 많이 크길... -고시생일들 ▶5월 20일은 우리 현우, 승범, 범진, 석찬, 연광, 승범선배 경렬, 순중, 육보, 화원... 이 성년식을 맞이해요. 축하해주세요. -97병정 ▶승욱아! 5월 30일 생일을 축하한다. ▶점은 사람 ▶5월 19일, 경제와 호연이의 400일을 정말로 정말로 축하해야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겨레사랑 5·18학살제 준비 수고하세요. ▶제임스 리 ▶하늘이(하나님 그리고 남누리) 여러분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합니다. ▶정 ▶동국연국회 30회 정이공연을 하는 팀 '무엇은 하나기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다. 힘내라. 해경아! ▶친구가 ▶열심히합시다 ▶희정누나! 동원이 비록 2명밖에 안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랑해요. ▶MJ ▶김철사랑 애들이! 공연 연습하는 라고 고생이 겁나게 많다. 몇일 안남았다. 열심히 하자! ▶애매가 ▶사시만 학우님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 거두어 보자구요. ▶어는 사시만 학우로부터 ▶미정아 친구 화정이야

▶정주아! 소리부장 맡아서 열심히 하라! 고생이 많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한 목소리로 통일세상노래 하도록 하자. ▶친사신사 상름 ▶147만 잘하면 잘 될게라! ▶할배공연 원안반 ▶동대 미식축구부 춘계리그 2전 2승 안으로 2게임 이기면 춘계리그 우승. 아그들이, 열심히 하자. ▶나.애우 올림 ▶항상 웃을 잃지 않는 소중한 아이들이 되기를... 공연준비 열심히 해라. ▶소.아 ▶알립니다 ▶저희 동독회에서 제15회 영남지구 고교생 서예대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독회원 일동 ▶정미아!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너의 아름다운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사회전 해오, 꼭 보러 오세요.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원효관 중정에서... ▶동국 문화회 ▶애오라지 워크샵 공연이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오세요. ▶그리고... ▶미정아! 지금 네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말로 정말로 빨리 낫기를 바래. 무지무지 사랑한다. ▶미정아 친구 화정이야

지도자 개혁의지 · 시민의식성숙 시급



정요섭
숙명여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시사논단

한국정당과 정치자금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은 악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때문에 국가경제가 망하고 정치가 금전의 시화로 타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의회 민주주의의 국가에 불태워져서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필요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양에는 '파리 부는 자에게 돈을 내는 자가 곡물을 주문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을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정당이 자금을 낸 자가 정책을 주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당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자급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일부 소수의 대재벌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 정당은 그 재벌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게도 밥 주는 손을 들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자금을 대주는 이권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권단체나 압력단체가 정당을 지배하게 되어 정당은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되게 된다. 특히, 지정기탁금제는 정치자금의 집권당 편중을 조장하고 있으며, 집권당과 기업간의 정경유착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치자금을 제공 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음으로 결국 정치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의 집권당 편중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지 못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활동 비용의 과다지출, 무한대의 정치자금 지출을 부추기는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법규정의 미비와 강력한 법 집행의 회피,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제구조, 정당의 사당화와 돈으로 관리하는 계보정치, 비공식적 정치자금에 의존, 정치자금의 공개적 논의를 금기시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공개화와 공정화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주의'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정당에게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을 기본정수로 삼아야 한다. 둘째, 최소화 - 최소화된 정치자금의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셋째, 균등화 - 균등화로 정치자금의 조달이나 배분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독점되는 기탁금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후원회가 없었던 시기에 기탁금 제도가 필요하나, 후원회를 통해 정치현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탁금 제도는 사실상 필요없다고 하겠다. 넷째, 공영화 - 공영화란 국가가 선거자금, 정당 운영비 등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자율성 - 자율성이란 정치자금의 조달이나 사용이 자율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인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준법성 -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더불어 정당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정치를 부패로 인도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에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자금의 정당화 조달과 운용을 위한 근본적 문제는 정당측의 자금 운용의 합리화 및 자금거래의 방지가 있어야 하고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입법과 행정기구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관심이 고양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부가 세분화되고 분산화되어야 한다. 또한 당원의 확대 조직화와 당비제를 실시 강제해야 하고 당정정을 공개해야 한다. 당재정의 공개거래 합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개제가 실시된다면 현행하는 속도 특수한 이익과 특혜의 교환 조건으로 하는 헌금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자금을 받는 정당측도 뉘가 개리는 헌금의 수납에 있어서 합리적이 아닌 수입이나 지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개제는 정치인의 부패적 자세를 교정할 수 있고 또 대중을 위한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당재정을 공개하고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정치자금 배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요컨대 앞으로 정당과 관련된 정치자금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개혁의지,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정치권의 미래지향적인 자세전환, 민주주의의식의 성숙, 그리고 관계법규의 엄격한 적용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러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에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벤처기업은 요즘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인한 불황의 늪은 역사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하늘을 찌른 듯 오래다. 정부 또한 '경제 살리기'의 물 파구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벤처기업'이란 벤처(Venture)라는 단어가 말하듯 모험성이 강한 기업이다. 즉 사업 자본이 적고 사업을 개시 한 기간이 길지 않아 아직 안정적 단계에 오르지 못했으나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 보유력, 아이디어 등 무형의 자산이 많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힘겨운 경제의 주요 대안인 양 제시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실효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천7

벤처기업, 경제위기의 '만병 통치약' 아니다

참신한 기획 · 가능성으로 승부해야

백여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천개사, 향후 2천1년 까지 2만개사 정도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20% 성장한 것을 미루어 벤처기업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벤처기업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투자정도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달라지는 벤처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막연히 보이는 크립색 동경에 '벤처기업'만

이 유일한 방안 인양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벤처기업은 젊은 기업인들이 소자본과 자립적인 아이디어로 위주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모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기업 재벌체제, 정경유착 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본래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비로써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벌써 벤처기업들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벤처기업 직접 참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의 한 관계

자는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몇몇 기업은 돈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장 절실하게 자본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오히려 편향된 투자성향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된 셈"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의 벤처사업 직접참여도 그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성에 한계가 있는 벤처사업의 초기단계에 대기업이 참여한 것은 자본력이 미약한 소규모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활성화 또는 역으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유망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벤처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통한 자생능력을 키워주고 이를 방해하는 관료집단이나 부처간 이기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또 갑작스러운 벤처기업 불어로 특정기업에 투자가 물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환경을 고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업의 벤처사업 직접참여나 기로체제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더 고조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감안할 때 벤처기업이 그들과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유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자본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은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그들 특성에 맞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정식 기자)

사설

다시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생각하며

오늘로서 광주 민주화항쟁은 17주기를 맞이했다. 해마다 찾아오는 5월이지만 우리는 예년과는 다른 5월을 체험한다. 한때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때도 됐던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또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직도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예년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가 크게 변화했다는 데에 있다.

이제 더 이상 5.18 광주는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항쟁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유혈진압과 그 이후 신군부정권의 권력장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로 물든 패배이며 좌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외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투쟁'이 촉발한 아래로부터 민주화 요구는 더욱 드세어져서, 80년대 내내 계속된 민주화 투쟁을 뒷받침하였고 이윽고 86년 6월항쟁으로 계승·발전되었던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리 했다. 그러나 그 직후 신한국당은 사법론을 지지했다. 그것은 '한보리'와 '내선자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집권여당으로서, 올 12월 대선 이후의 정국구도에 따라 '전·노' 사면을 실현하여 TK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위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이토록 구차한 모습을 보면서,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 깊은 절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80년의 광주를 상기한다면, 전·노세의 사면은 최소한 세가지 이유에서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첫째, 민주주의의 싹을 피우기 위해 목숨까지 깎아내린 2천여 명의 희생자를 강요한 장본인들이 아무런 벌과도 받지 않는다면 그 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학살자의 민주주의자에 대한 관용은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광주 민주화 항쟁'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권력의 추종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로 '전·노'를 사면하는 것은, 대선국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철저히 대두된 지역갈등문제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주요모순 즉 지역갈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빛나는 5월의 푸른하늘 아래서도 무심한 웃음조차 짓지 못하는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훑어 때를 지워주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전·노'의 사면은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당시의 진실을 다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국만평

고대성



대선 자금

어쩔 겁니다.

正道경영 초우량 LG

21세기 정보사회를 움직일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제5회 전국 대학(원)생 정보통신논문 현상공모

- 응모자격**
전국 각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전공불문)
- 공모주제**
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논문
*의도하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도 가능(소프트웨어 개발논문 포함)
나. 정보사회 구현에 관한 연구논문
예) ①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산학협동체제
② 정보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기업 또는 학계의 역할
- 논문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 요약문 A4 용지 2매 내외 첨부
- 응모마감**
1997년 9월 30일(우송시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논문제출처**
① (100-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51
매일경제신문사 정보통신부(TEL: 2626-205)
② (150-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서관 17층
LG정보통신(주) 홍보(TEL: 3777-2764)
-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관련업계를 망라한 사계의 권위자로
매일경제신문사가 위촉
나. 전체 응모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비심사 논문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 심사자 발표**
● 1997년 10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 시상**
● 대상(경총부 장관상)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금상 2명: (일반 1명, 기술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은상 2명: (일반 1명, 기술 1명)
상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 해외연수 4박 5일
● 동상 6명: (일반 3명, 기술 3명)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지도교수상 ○ 명: 감사패, 상금 200만원
*시상식은 1997년 11월 4일(월)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기타**
● 입상자가 LG텔레콤 및 LG정보통신 입사를 희망할
경우 특별부여(회사선정은 주최사가 결정)
● 응모시 신청서와 함께 재학생명세서 제출
(신청서는 각 대학 학생처에 비치 예정임)
● 수상논문집 발간(97년 12월 중)
● 응모 논문은 주최자 소유(예외 인정)
■ 주관: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TV,
(주)LG텔레콤, LG정보통신(주)
■ 후원: 정보통신부
■ 협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학회

북한 쌀, '동포애'와 '불신' 간 대립심화

민간단체의 지원·전달 투명성 보장해야

북유럽과 추위로 죽은 어린이들의 시체를 목격했다는 얘기와 주민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북한의 식량난을 과포로 느끼게 했고, 동포를 살리자는 '북한주민 돕기운동'을 우리사회에서 활발히 일게 했다. 어디에서나 이 운동을 접할 수 있을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통제와 군량비로 전용 될 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진통을 겪고 있다.

통일원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쌀지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되어 도리어 남한의 안락과 복지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상적 동정성에 앞서 북한체제의 민주·개방화부터



◇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한겨레21)

단국대 정용석 교수는 모일간지 논단에서 "북한동포 돕기운동이 북한정권에 의해 악용

국방부는 거창하게 치른 북한의 김일성 생일 잔치를 비판하며 그 돈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 역시 허가받지 않은 교내 모금운동을 일괄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국 교육청에 보내 학교 모금운동의 확산을 견제하고 있다. 북에 식량을 보내는 통로가 대한적십자사 하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민간인의 식량지원에 있어 커다란 벽이다. 지난 14일에는 정부의 취소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이란 행사가 2천 5백여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렇듯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공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버렸다.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은 언제나 경제학에 한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고, 이 중간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한가지 북한주민 돕기운동이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일간지 결과물들의 편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유일한 통로인 대한적십자사는 하루가 급한 북에 한달여간 시간이 지나서야 식량을 건네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단체는 적십자사를 못 믿겠다며

창구 일원화 원칙을 비판, 한시라도 빨리 전 해줄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배려'가 할 것'이란 문제에 명확하게 된다.

선택이란 '쌀을 보내야 할 것인가 보내지 않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의 선택이고, 배려는 할 것인가 '민간에서 모은 식량의 정확한 전달 경위와 전달 자체의 이유'를 말한다.

5년여만에 재개되어 기대를 걸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별다른 결과없이 북측의 '일만불'과 남측의 '이렇게'의 자기주장 필치기에 그쳐 실패한 양상을 보였다. 북한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정부의 하나된 목표가 중요하다. 불이났으면 불을 먼저 꺼야지, 불을 끄기 위해 모였다가 서로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한다 면 불은 이미 겁잡을 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쌀과 기금은 이제

울로기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들, 남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인 그들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곧 열 개 될 적십자 회의에서는 정치체제의 틀을 깨고, 지난번과는 달리 북한주민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일간 식량 전달 내용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죽어가는 동포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창구 일원화 원칙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민적으로 북한주민 돕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는 민간차원의 모금으로는 그 양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북에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 남한정부와 국민, 북한정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김용환 기자)

동양문

두 스승



5월의 푸르름이 한결 진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태양이 맑은 하늘과 싱그러움 초록은 오늘로 제 16회를 맞는 스승의 날을 한없이 축하해주는 것 같다.

강의실 곳곳에서 스승과 제자간의 정다운 대화의 시간을 갖는 모습과 자신의 옛 추억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어느 노교수의 환한 얼굴이 한 강의실 창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점점 맑아져가는 것이 요즘 대학의 현실이라지만 그대도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해 존경과 사랑이 존재하는가 보다.

그러나 이어진 교양과목 시간, "김00", "네", "박00", "네"

한 교양 과목의 출석부르는 시간이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주거나 꽃다발을 안겨드리는 모습은 커녕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대신 그들에게 안겨진 것은 평소패와 마찬가

지로 학생들이 교수님을 피해 소리없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뿐이다. 출석은 불리고 학생들의 강의실 이탈 또한 계속된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지난 후 강의실에는 처음의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

다. 전공 과목과는 달리 교양 시간에 '스승의 날'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카네이션 한 송이 없고, 교수에 대한 예의도 없다.

전공과목 교수와 교양과목 교수는 스승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단지 '과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같은 우리의 스승이다. 교양과목 교수 역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스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년 '스승의 날'에는 교양과목 시간에도 스승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

(심미선 기자)

"우리는 이제 끌려다니는 교육을 거부한다"

제2대학으로 자유로운 토론문화 만들터

대학의 교실이데어를 생각해 본다. 의미없는 강의출석, 안을 우선시하는 페포로, 딱딱한 용나를 강의실, 매년 거의 비슷한 시험문제, 지루한 강의내용, 관심없는 교양강좌들. 요즘 이런 대학의 현실들은 학생들에게 '대학이란 과연 무엇?' '학교는 왜 다니는지?'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한다.

도서관 열람실은 점점 비좁아지고 있다. 물론 공간상의 이유, 학생의 증가요인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개 도서관을 차지하고 있던 취업준비생들 틈을 파고 들어오는 저학년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책들 더 읽어 교양을 쌓거나 지식을 얻기보다는 시험 예상문제, TOEIC, 1학년때부터 취직에 유리한 혹은 학점에 유리한 시험을 위한 공부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취직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한 단면이다. 정말 대학이라는 공간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학문의 성지라는 어리도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적인 교육체제에 무비판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대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으로 지난 95년에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제2대학(Alternative University), 더 이상 토론문화가 대학가에 정착되지 못하고, 과거의 함께 하는 공동체



화에서 이탈해 버린 전반적인 대학문화에 대해 미비하며 완전한 않지만 학생 스스로

주제를 찾아낼 수 있고, 관심분야의 진지하고 학문적인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말한다. 이는 현재 대학이 진보적인 학문을 창출하고 소통시키는 기능을 상실하며 또한 사회 교육에 해당하는 학회나 동아리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3년째 맞고 있는 현시기 제2대학의 위상은 어떠한가. 제2대학에 대해 이야기해 '제2대학'에서는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 별도로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자치적 교육질서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밝힌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교교육 역시 그 근본적인 결점점은 교육 자본의 손에 놓여있고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는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학사업무에 대한 예를 들면 교직 임명권이라든가 모든 결정권은 재단에게 주어져 있다. 교육과정은 강의실이라는 일정한 틀을 지닌 공간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에 이르면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제2대학운동은 제2교육 밖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인 교육질서를 만들려는 운동이며 제도교육의 태두리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교육질서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기반인 자본주의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제도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를 위한 운동이다"라고 제2대학측은 말한다.

그러나 제2대학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모토로 삼고있는 '자본주의 교육질서를 벗어난 자치교육질서의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상(像)을 제시하는데 있어 아직은 미숙한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들이 타파하고자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제2대학에 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총학생회와 사교대 학생회, 철학과 사회문화연구회의 주최로 '백악이 대학이

11대 할아버지께서 처음, 나무 한 그루로 시작하셨습니다.

5대 할아버지께서 숲의 형태를 갖추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숲, 흑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나무사랑 - 자연선진국의 시작입니다

깊은 빛을 밀 정도로 울창하다는 독일의 흑림이다 - 세계에서 가장 맑은 가꾸어진 숲으로 이름난 이곳은 9백여년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숲입니다. 긴 인력으로 대를 이어 내 목의 숲 가꾸기를 실천해 오는 사람들 -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살고 가꾸는 그 노력이 9백여년 전 보물 창고였던 독일의 숲을 세계의 자랑, 흑림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연선진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부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새 세대의 숲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께 드립니다.

숲에 관한 올바른 상식을 전하기 위해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심벌마크를 오려 보내시면 무료를 통해 무료로 드립니다.

● 심벌마크와 함께 민초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신을 적어 보내주세요

● 발송처 서울신림동 157-33 유한강변빌딩 135-0903

● 문의전화 02) 628-1068-9

유한강변빌

사진으로 보는 대동제역사



◇84년 개막식... 고등학교 조희시간처럼 연단을 가득 메운 교수들과 직원들 학생뿐만 아닌 학교의 행사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87년 양키고 홈...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학생들은 물풍선을 던지며 "양키고 홈 파쇼타도"를 외쳤다.



◇90년 우리 것을 살리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축제보다 대동제가 익숙해진다.



◇93년 외나무 다리... 물벼락은 날아들고 몸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뒤통거리다. 그래도 입에선 마냥 웃음이 난다. 왜? 함께하는 대동제니까



◇96년 공연·전시회... 동역을 가득메운 포스터와 게시판을 번듯한 전시물 앞에서 학생은 고개만 돌릴뿐이다.

◇대동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학내 3주체가 '크게 하나되는 장'으로 거듭나야

의견수렴 창구·학생관심 선결조건

유난히 행사가 많은 5월. 스승의 날도 지나고 이제 대동제가 시작된다. 중간고사도 끝난 이 시점에서 대동제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지만 본교 학생들의 대동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대동'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저 학과 단위의 학생들간의 단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 동국인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동제 기간이라 하면 으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 방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새벽이 다 되도록 술을 마시고 대동제 행사를 핑계로 수업에 불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이유로 대동제 문화의 제자리걸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대학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신입생들이 들어오지만 풍악의 대동제 문화는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풍선 터트리거나 캠퍼스 커플들의 게임이 대동놀이의 대표로 인식돼 버리고 해마다 관성처럼 그런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학생회는 호응도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생각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려는 별다른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때 대동이라는 의미가 학생들의 단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한다.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대동제의 개최식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직원들까지 참석했다. 동국의 대동제라면 교내 3주체의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대동제 기간을 맞아 각대학의 특색 있는 기획들이 눈에 띈다. 서울대의

경우 대동제의 개막식을 '발췌아형제'로 개최하기도 하고 송실대는 하늘, 땅, 바다, 사람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환경예술제를 개최하기도

성 때문에 정통성있는 사업이나 당찬 계획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0년전에는 대동제가 아닌 축제'학술제가 열렸었다. 축제가 단지 즐기는 것이라면 학술제는 조금은 대학의 상아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청강사들의 강연과 학술 동아리들의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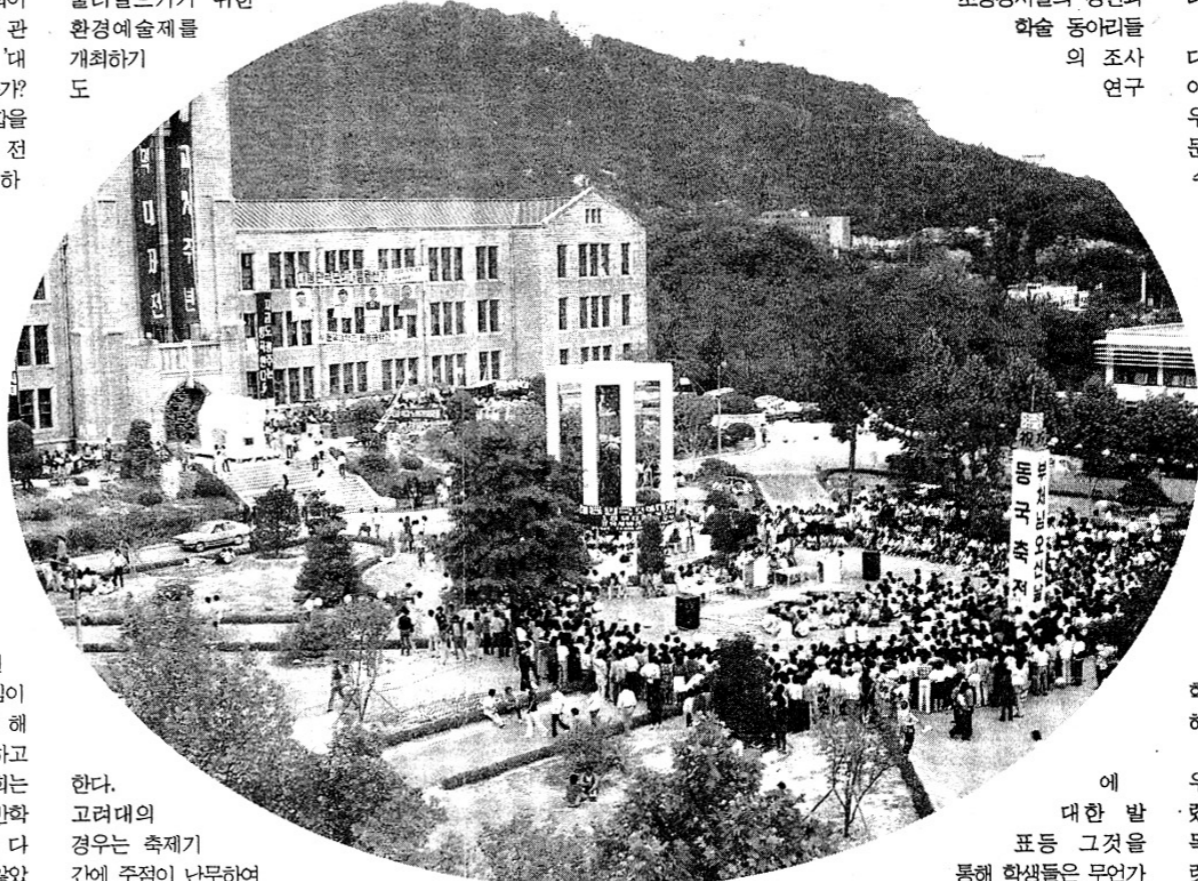
비율을 늘려 균형을 맞추고 학교 생활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도 있으며 조금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동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동제 기간에도 수업은 계속된다. 학교 전체가 대동제 분위기에 싸이면 수업시간은 그 진도를 다 못 채우는 폐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에 주점의 소음은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동국관 밖에서는 술을 마시며 큰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때문에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기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점의 위치를 고려하는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동제 행사에 참여 미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회의 기획과정에 일반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기획부터 학생들의 목소릴 담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학생회자들이 각 학과의 대표성을 띠고 의견을 모아낸다면 그것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주인되는 자세로 이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낭만은 취업 산업화와 개인 우위적인 사고 때문에 많이 퇴색돼 버렸다. 대동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하면 수업 때문에 여럿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사회가 일반 사회와 구별되는 것은 그 특수한 학문의 장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전부가 아니며 앞서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 화합의 자세로 준비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나온 공동의 장을 준비함으로써 지성의 상아탑을 한층 빛낼 수 있을 것이다.

(이태훈 기자)



한다. 고려대의 경우는 축제기간에 주점이 난무하여 비판을 받고있지만, 이를 시대

별로 나누어 그 시대의 노래와 사진을 통해 고학년들에게는 그 당시의 향수를,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시대의 주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참신한 기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교 대동제는 추구하는 기조와 행사가 있어서 특성을 정형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되어 온 대동제는 단기에 걸친 기획과 단과대 중심의 대동제 구

청년 가요제나 판국경연대회로는 동악의 특색을 선보인다거나 기조를 알려내기는 힘들것이다. 하루아침에 틀 거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행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더라도 매해 일정한 의식의 흐름과 특색있는 기획을 만들어 '동악의 대동제'하면 떠오르는 상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에 대한 발표 등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무언가를 얻어 갈 수도 있었다. 올해는 본교도 청년 강좌라는 것을 통해 학우들에게 여러 가지들 전달해 주는 노력을 보였다. 시작은 미흡하지만 특색있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학술적인 부분을 늘려볼수록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점일색의 대동제에서 탈피해서 다가가기 쉬운 학술제를 실시해서 놀이 중심에서 학술제의

목먹 대동제를 듣는다

오는 21일부터 4일간 진행될 대동제를 맞아 총학생회 윤기원(통계4) 사무장과 동아리연합회 최보영(물리3)부회장을 만나 대동제 사업에 관한 이모저모를 들어 보았다.

소비·향락적인 축제 탈피 대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총학생회

- 제 28대 총학생회가 준비하는 대동제의 기조는, = '역사는 말하리라... 담당한 우리의 길'이다. 벌어지고 있는 학원단합의 모습들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학생들이 전민항쟁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대동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 어떤 모습의 대동제를 기획하는가. = 아직도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향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축제를 우리의 대동제로 잘못 알고 있는 학우가 많다. 대동제는 함께 어울리는 장이다. 단순히 이벤트사에서 기획하는 오락과 보여주기식 대동제에서 탈피하고, 학우들의 손과 땀은 기획들로 채워 나갈것이다.
- 예년에는 대동제에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의 원인과 극복방안은, =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기획·집행력의 부재와 대동제를 비롯한 대동사업의 정형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대동제 집행력의 한계로 몇몇 간부에게만 집중되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 우선 단과대학별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학내선전전을 실시하고 있다.
- 학생회가 없는 단과대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 법과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에서 대동제 외의 그간 학생회부재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이과대와 공대는 자연과학부와 공학계열 학생회 임원들을 만나 의논하고 있다. 학부나 계열학생회 중심의 사업들이 될 것이다.

동아리 연합회

- 이번 대동제를 통해서 알려내고자 하는 비는, = 동연뿐만 아니라 동악의 주인이 학우들이고 학우들이 주인되는 대동제를 만들 것이다.
- '학우들 속으로의 도발을 감행하자'는 기조는 기존의 관성화된 학생회와 학우들의 이원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다가가지는 뜻이 담겨 있다.
- 준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학생회관 아스팔트공사로 없어진 바다그림을 다시 그릴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주인되는 세상을 다룬 정치강좌와 기획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을 위한 주점을 기획하고 있다.
- 전 동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직은 동연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크다. 당장 1만 2천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가지소이다. 단계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동연의 활성화를 가져온 후에 1만 2천의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 나갈 것이다.
- 대동제 활성화를 위해 학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 누군가 말도 하지 않는데 그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 줄 순 없다. 맘에 들지않는다면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학우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준비하고 이야기한다면 더 나은 대동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진 기자)

◇ 다음은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잘 알고 적극참여해 대동제의 주인으로 즐겨보자

일시	행사	주최	장소
20일 오전9시	통일대행진	총학생회	입진각
20일 오전9시	전야제(통일노래한마당)	등노협	만해광장
21일 오후1시	개막제	총학생회	불상앞
21일 오후3시	우리웃찾기선보이기	학복위	도서관앞
21일 오후3시	김금화의 황해도 대동굿	총학생회	만해광장
21일 오후5시	판국경연대회	단풍연	만해광장
22일 오후4시	민족동국 청년가요제	총학생회	중강당
22일 오후4시	대동놀이	총학생회	대운동장
22일 오후6시	폐막제	총학생회	녹두사거리

일시	행사	주최	장소
22~23일	학생회관 바다그림그리기	예술창작분과	학생회관앞
21~22일	주점	동아리연합회	학생회관앞
21~23일	기획선전·전시	동아리 연합회	동악곳곳
12~23일	동국아마추어 축구대회	체육교양분과	대운동장
21,23일	경당 시연	경당치우	불상앞
21~23일	통계전시	통계조사연구회	다향관앞
오전10시			계시관
21~23일	컴퓨터작품 전시	컴퓨터연구회	학생회관 로비
23일	공연	몽계구름	불상앞

◇ 당선자 이상우 (국문 83졸) 동문 인터뷰

“무한한 영광이자 두려움이다”

불교적 깨달음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소설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의 작가인 이상우(국문과 83졸) 동문을 만나 그의 당선소감과 문학관 등을 들어보았다.

- 우선 당선소감을

= 무한한 영광이자 두려움이다. 따듯한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고, 게으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한 책적질을 하였다. 깨달음이 언젠가는 대중화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에 지그재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은혜에 보답코자 한다.

- 응모하건던 계기와 불교문학에 대한 생각은

=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고 불교 정신을 문학화 하고자 응모하게 되었다. 불교문학은 우선 문학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중적 감동으로 독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하자면 깨달음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려하나.

= 아직까지 불교문학은 대중에게 생소하게 사실이다. 불교정신을 구체화하고 예술화해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 이번 작품은 '비움'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마음과 몸의 화해, 죽음의 의의, 고통과 결속, 배움 등을 글로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싶다.

-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학교는 오랜 역사와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그 잠재적인 힘이 언젠가는 터질것이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나는 '동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 '제1회 현대불교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당선된 이상우 (국문 83졸) 동문

◇ 제1회 현대불교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당선작

비어있는날의 행복, 불교와 대중의 벽을 허물은 수작품

참된 자유로움 ·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세계 표현



'비어있는 날의 행복'. 이 작품은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한 '제1회 현대불교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당선작이다. 작가는 이상우, 10여년간의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한 늦깎이로, 본교 국문과를 83년에 졸업했고 신라문화재 백일장 장원, 통일문화진흥사업 최우수상, 동대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교사인 주인공 '나'는 교사로서, 교사로서의 불합리성에 괴로워하다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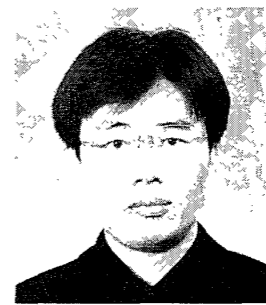
연한 기회로 동료인 최선생과 함께 표를 내고 퇴직금을 통장 털어 김사장의 농장에 몸을 담게 된다. 나는 농장에서 조씨라는 사람이 세속적 욕망을 깨달은 부인과 나는 조씨를 화상하여 그가 자랐던 쟁쟁사에게 젓가락을 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최선생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 버린다. 다시 찾아간 스님에게서 조씨의 무소유(無所有)적 삶을 듣게 되고, 조씨는 병이 악화되어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옮겨다니며 결국 사망한다. 영안실에서 조씨의 딸을 기다리며 그의 부인이 들려주는 조씨의 삶의 역정을 통해 나 역시 욕망을 버리고 평정(平靜)을 찾게 된다. 딸을 기다리는 것마저 세속적 욕망을 깨달은 부인과 나는 조씨를 화상하여 그가 자랐던 쟁쟁사에게 젓가락을 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시장의 횡포로 일꾼들은 하나 둘 농장을 떠나지만 나와 최선생은 소유하고 있는 사슴 2백여마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한다. 그러던 중 김사장을 폭행한 죄로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조씨는 나에게 쟁쟁사 꿈보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어렵게 만난 스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만 한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님의 주선으로 쟁쟁사 부근 아산으로 사슴을 옮긴다. 이튿날 사슴은 모두 도망가 버려

달 하나 천 강에

동포에게 온정을



중국의 연변 지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곳이다. 이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 비록 중국 국토이지만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정경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잔재된 문화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곳을 처음 방문해도 낯설지 않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런 이곳에 대다수 동포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먼 타향에서 우리의 옛 문화를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북의 동포들이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통해 이곳을 방문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6, 7년 전 이곳에 있는 동안 보고 들은 북한 동포들의 삶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북한 동포들은 그 이전부터 그들의 생애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친지를 찾아 나섰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부족한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집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2, 3일을 굶고 기차를 타고 국경에 도착하기도 하고 중국에 온 지 2주가 되자 체중이 10근(3kg)이 줄었다는, 2월의 매서운 추위에도 양말이 없어 맨발로 유자한다는 등의 소식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곳의 이야기로만 들릴 지 모르나, 이것은 필자가 직접보고 느낀 것 중의 일부이다. 여기에 또 일화를 소개한다. 그때 필자는 번역작가협회 초청으로 북한 작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고기를 숯불에 구워 북한 작가의 앞쪽에 올려 놓자 북한 작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는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혀 버렸는데 중국 동포가 그뿐만 줄 아니고 한미도 했다. 그 북한의 동포는 40년 만에 다시 연변지역을 방문하고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고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북한의 생활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곳 당국자들의 책임이 있다. 국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김정일의 별장 32곳 건설에 25억불을 투자했다고 하니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 이에 북한의 지도자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또한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민간주도로 이곳저곳의 단체에서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행사가 한창이고 정부에서는 장구 일인화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자 한다.

한 용 소 문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 '용의 눈물' 연출자 김재형 동문을 만나

“도를 닦는 마음으로,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사람들은 한 세상 한 세계만을 살다가 미련이 없다. 그런 광범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방송인데 그 방송 중에서도 연출이란 가장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는 연출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기상이 보고되고 늘 푸른 소나무같은 청소년들의 패기도 보였고 긴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았지"

연출자 김재형씨는 그러한 상상력 덕분에 어느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세 대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는 능숙하게 그들의 사고를 읽어내고 적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역사를 전달하는 사극 연출자의 몫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가 방송계에 처음 입문한 것은 61년 서울중앙방송국 제1기로 발탁되면서였다. 그리고 삼십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대하드라마의 연출의 대가라고 인정받고 있다. 38년의 연출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국토민리'를 비롯해 '민여노리', '사모곡', '한명회', '별담이씨' 등을 제작했으며 현재 촬영중인 '용의 눈물'을 포함해 제작한 드라마 편수만 1천 7백여편에 달할만큼 그의 연출역사는 길고도 화려했다.

87년 여름 그는 정년퇴임을 맞았지만 드라마에 대한 열정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후에도 연봉계약제를 체결하여 여전히 KBS에서 '스탠바이'를 의뢰하고 있다.

"글쎄, 바쁘다는 말이 제일 싫겠네. 월, 화 스튜디오 촬영에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야외촬영, 집에 있는 시간이라면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오전까지 촬영을 위해선 어디라도 찾아다니니까"

근래 생활을 묻자 그는 간단하게 대답한다. 지난 7일 본교 개교 10주년 기념식에서 금장회장을 수상했을 때도 그는 상장을 아내에게 맡기고 여느날과 같이 '용의 눈물'을 촬영하기 위해 경북경북으로 뛰어갔다고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제작하는 일외엔 어떤 것도 안중에 없었다고 한다. '퇴직하는 날까지 월급조차 들리지'하며 그는 멀썩히 웃기도 한다.

연출가로서 해야하고 알아야하는 것들,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 알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그는 지금 사극연출가로서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83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일선에 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는 작은 소망으로 대학교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을 꼽는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청자의 신뢰를 받는 연출가라면 애정이 담기지 않은 작품은 만들 수 없다고 그는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동문인 모두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부탁하자 그는 기자의 수첩에 10자의 한문을 적어주었다.

평상심시조 일체유심조 (平常心是道, 一體有心道) "평상시에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살며,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아야 한다는 말인데 연출을 하면, 글을 쓰면 이런 모든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만 살면 성과가 기대에 미흡하더라도 아쉬움이 없지" 그는 말을 마치고 스튜디오 녹화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느 20대 패기왕성한 청년보다 담담하고 자신감 있게 서는 그의 모습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최진 기자)

문화단신

연극야기

◇일군성노에... '제1회 세계여성 연극제' 공식 초청작품으로 일본 군부대내에서 지행했던 성직유린과 끔찍한 살육현장을 고발하는 이복녀 할머니의 실화를 소재로한 작품. 28일까지 마당세실 극장에서 극단 빛누리가 공연.

책야기

◇축한 여자... '고동어' 이후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공지영이 내놓은 신작. '한겨레신문'에 1년동안 연재되었던 소설이기도 하다. 광범한 젊은 여성이 한 여자로서 홀로서기까지의 고통과 상처, 내면의 성숙을 다루었다. '어머나'로서의 여성상을 크게 부각시켰다. 상·하 전권. 한겨레신문사출판부 펴냄.

제2기 객원전문기자 및 객원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가. 모집부서 및 인원

- 객원전문기자... 0명 • 객원학생기자... 00명

나. 모집분야

- 대학관련 분야-교육일반, 대학일반, 학술연구 등
- 진로·취업 분야-진로·취업, 유학 등
- 사회·문화 분야-정치, 사회, 문화, 환경, 미래 등
- 국제·정보통신 분야-국제문제,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조사자료를 등

다. 응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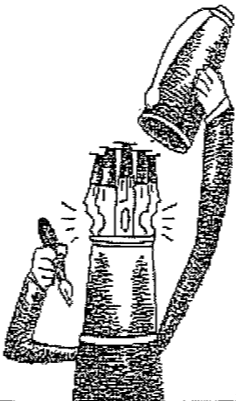
- 객원전문기자-대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대학원 재학,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등(현직 및 전직 일반인으로서 기자 및 대학원생 출신 기자 현 대학원 신문 기자 우대)
- 객원학생기자-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이상의 활동적인 남녀

라. 모집기간

1997년 6월 20일까지 수시접수

마.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관심분야 기획 및 취재 계획서 1부(형식없음)
- 사회·문화 분야-정치, 사회, 문화, 환경, 미래 등
- 대학문화신문 매체평가서 1부(신문의 향후 편집방향 등)
- 기타 활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첨부(기명기사 등)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건강한 대학문화 구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대학문화신문에서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객원전문기자 및 객원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대학문화신문이 대학전문언론매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학과 대학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금번 객원기자 및 객원학생기자 모집에 의욕적이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학문화신문사 The University Culture Press 서울 중로구 윤4동 98-78(1)터타워 12F

바. 합격자 발표

심사후 개별통지함

사. 활동내용 및 처우내용

- 1) 활동내용: 객원전문기자: 각분야 별 객원전문기자로서 매월2회 이상 편집, 특집, 기타 분야에 대한 아이템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택된 기획(안)에 대한 취재활동 및 기사작성. 대학문화신문의 편집계획에 의거 전문 또는 특수 분야 원고 집필. 객원학생기자: 대학별(지역별) 학생책임기자로서 매월2회 이상 편집, 특집, 기타 분야에 대한 아이템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택된 기획(안)에 대한 취재활동 및 기사작성, 대학별 주요 관련사항 보도기사 취재 및 기사작성 등 역할 수행.
- 2) 처우내용: 객원전문기자 및 객원학생기자는 편집기획에 따른 취재 활동비를 지급하며, 채택된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 3) 기타사항: 객원전문기자의 경우 분사 계약적 사인 채용 규정에 의거 채용이 가능함. 대학문화신문에서 주관하는 각종 여론조사 사업 및 기타 행사 참여 및 아르바이트 기회 우선 부여

아. 제출처 및 문의처

대학문화신문사 편집국 서울시 중로구 윤4동 98-78 터타워 빌딩 12층 전화 762-1366/팩스 762-1749

'역사는 말하리라... 당당한 우리의 길'

97 대동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통일노래한마당 · 전통굿공연 · 청년가요제등으로 학생참여유도

97 목척 대동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역사는 말하리라... 당당한 우리의 길'이란 주제로 제 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아간경영4) 주최로 열린다.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의 의의에 대해 "과학생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주도적 참여를 일구어내고 대동제를 통일지향의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대학 문화로 만들어 민족화해, 민족 단결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동제 목표는 △대동제 문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 △전체가 어우러지는 생동감있는 대동제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준중적 대동제 상사 △각 단과대가 자율력을 높이고 각 단위의 창조적 자주적 사업을 지지, 지원하는 속에서 학생회 강화의 밑거름 마련 등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0일에는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통일 대행진'이 개최된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전야제로 '통일노래한마당'이 치러진다. '통일노래한마당'에는 영문과, 국과과 등 총 9개 팀이 참가하고 이어 '회합제'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21일 오후 2시 불상앞 사전행사 길놀이로 시작되는 대동제 개막식은 새내기 문예단 공연, 자봉단·규합대 발족식, '천리마'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오후 3시 민해광장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82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예능 보유자인 김금화씨가 황해도 대동굿 공연을 펼치는 등 '전통굿 공연'이 마련된다. 오후 5시 민해광장에서는 단과대 풍물패 연합이 주관하는 판국 경연대회가 열리고 이 날부터 23일까지 중앙도서관앞에서 민속놀이, 우리옷 판매 및 우리옷 패션쇼, 전통차 판매가 학생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22일에는 '민족통곡 청년가요제'가 본관 중앙당에서 4시에 열리며 이 가요제의 예선은 오늘(19일) 오후 2시 불상앞에서 실시된다.

마지막인 23일에는 오후 4시 대운동장에서 대동놀이가 펼쳐지고 오후 6시 녹두사거리에서 폐막식이 열린다. 폐막식은 중구주민 노래한마당, 중앙공연단 공연으로 꾸며진다.

문과대 학생회(회장=유재하·국문4)는 이번 대동제 기간에 △19일=바다그림 그리기(명진관 앞 그림 복원) △21일 오후 3시=에비여 유우 패치기 대회 △21~22일=웃그림 그려서 판매하기(도안은 22일까지 계속 공모) △22일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회장=배근호·식자4)는 소모임과 과 중심으로 대동제 행사를 치른다.

행사내용은 사제의 내비 채집 전시(해화관 2층 로비), 나무와의 나무 표본 전시(2층 로비)와 비디오 상영, CFC의 해화관 앞마당 야외 영화 상영 등이 있다.

한편, 응용생물학과는 해화관 앞마

양에서 주점을 연다.

사범대 학생회(회장=김지희·역교4)는 '나는 예비교사 우리는 한총련, 정민항쟁의 주인은 나, 그리고 우리'라는 모토 아래 대동제행사를 치른다.

행사 일정은 △19일=6시 개막식, 바다그림 그리기, 영화 '세친구' 상영, 사범대 노래패 '불휘' 공연, 파벌 율동 뽀빠기 대회, 3월·4월 영상보고, △21일=열린 달리는 한총련 △22일=평기인정제 토론회, 소장당 살리기 문화제, 폐막식 순서로 진행된다.

예술대 학생회(회장=신현찬·연영4)는 대동제 기간동안 미술과 주최로 주점, 풍물관매를 실시하며, 연영과 주최로 록구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민복 티 도안 공모전을 열어 대동제 기간동안 전시할 예정이며, 우수작품은 23일 발표한다.

동아리연합회(회장=김명희·역교4)는 오는 2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목척대동제'에 참여한다. 기획사업으로 동연 예술장작본과 '학생회관 앞 바다그림', 학생회관 2시간 개방을 위한 '3천 동아리인 결의주점', 동연 학술 1본과의 정치강좌, 동연 문화국의 기획공연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물건인가?'를 계획 중이다.

제 12대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시3)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여성주간을 기획,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행사 일정은 △26일=1시 여성주간 선포식(불상앞), 5시 영화상영 및 강연회(중앙당) △27일=11시, 3시, 6시 '인포니오스 라인'을 비롯해 3편의 영화 상영(중앙당) △28일=5시 매매촌, 포르노에 대한 열린 강의(불상앞) △29일=여성들의 체육대회(민해광장) △30일=3시 성문화상 시상 및 여성주간 폐막식(중앙당)으로 이어진다.

이에 홈리 부총여학생회장(화학3)은 '남학우 중심의 공간에서 여성문화와 공간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여성주간을 기획해 봤다'고 밝혔다.

축구부 오늘 성대와 한판승부

"야구부 안타까움 우리가 풀겠다"

본교 축구부는 97 전국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및 대학 상비군 선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6개 대학이 1조를 이뤄 조 2위까지 본선에 진출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 축구부는 홍익대, 서울대, 영남대, 경일대, 성균관대와 함께 1조에 속해 있다.

지난 9일 서울대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이기고, 11일 영남대의 경기는

2대0로 패했으며, 15일 홍익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패했다. 오늘(19일) 오후4시에는 성균관대와와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다.

체육부 조정진 계장은 "본교 야구부가 준우승해서 안타까웠는데 축구까지 뜻대로 안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성균관대와와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 축구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학과 90학번 도서관에 도서관주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에 불교학과 90학번 졸업생들이 지난 12일 1백 8권의 불교관련 서적을 기증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도서관주 역시 백팔번번을 상징해 1백 8권이 전달되었으며 불교학과는 매년 8기 증식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김중철 수서 서무계장은 "학과 졸업생들이 이렇게 매년 도서관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후배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학과 졸업생들의 도서관주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대, 춘계 불교유적답사

불교대 학생회는(회장=정익성·선3)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영남, 충북지방으로 춘계 불교유적답사를 간다.

'경주 밖의 신라, 경주밖의 불교'라

는 가치 아래 신라지방 불교 양식을 답사하는 이번 행사는 △22일=선산군 고운사 △23일=안동시 봉정사, 영주시 부석사 △24일=중원군 가급면 마곡리 등을 방문한다.

여학생부처 인터넷 무료강좌 실시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3)는 오늘(19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산관 1층에서 인터넷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수·목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인터넷의 개념, 국내 ISP연결방법, 웹 브라우저의 개념과 기능 등이다.

여학생부처 한 관계자는 "1일 2시간에 내용과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학과소식

경상대,세미나 개최

경상대 학생회(회장=양한승·정보관리3)는 학생들의 학문적 요구와 바라는 대학문화 정착을 위해 학술 세미나와 동문 초청 세미나를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한다.

22일 1시 동국관(L501)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는 경제학과 학생회장 장원구(경제3)군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경영학과 학생회장 김치오(경영3)군의 '우리나라 물류비용의 현황과 그 모순점 해결 방안제시' 발표로 진행된다.

또한 23일 1시 동국관(L401)에서 안영식(경영학 박사)동문과 이주선(경제학 박사) 동문 초청으로 열리는 동문 초청 세미나는 '우리나라 금융개혁에 관해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자연과학부

자연과학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명진관과 과학관사이의 잔디밭에서 주점과 잡화점을 연다.

연극영상학부

연극영상학부(회장=이석준·연영4)는 작품 '백베드'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국대학연극학교 교수협의회와 국립중앙극장이 공동 주최하는 '젊은 연극제'에 참가한다.

한편 22일부터 25일까지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4시 30분, 7시 30분 1일 2회(단, 25일은 4시 30분 공연만 있음) 이 작품들의 재공연을 실시한다.

학·전·무·대

벗어라 !!

O...자나 일주일동안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며 만든 인터넷 뉴스이슈회!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들쭉날쭉한 YS.

한 사람은 흠뻑 뱉어서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살살이 벗겨져야(?) 하는 신세.

이제 회전대학 사회학 교수 왈, "이슈회가 흘러감 벗어라 인가 끈 채터할 YS도 인기 끌려면 뽀뽀 뱉어서 밝혀야 할 걸"

배터진 수거함

O...동학 안, 조흥은행 앞의 건전지 수거함이 배가 부르다 못해 무구멍으로 내용물이 기어나올 지경.

수거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폐건전지들로 꽂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어 폐건전지가 수거함 밖으로 비집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에 지나가던 한 아시아 지역 학부 학생 말하기를, "실질적 해 놓고 관리하지 않는 것이 역시 우리 학교 수거함답네요"

병 좀 치우소

O...요즘을 공대 농구장에는 아마추어 농구 동아리 주최로 과대항 농구 대회가 한창 진행 중.

문제는 응원할 하러 온 학생이나 선수로 뛰는 학생들이 먹고 남긴 음식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나뒹굴고 있다는 것.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한 학생 터덜터덜 읊조리듯 한마디, "병 좀 보소, 병 좀 보소, 버영 좀 보소~오, 농구하듯 응원하듯 병좀 치우소~오"

'물지 마' 관광

O...아침 9시 부인역 편의점앞에 중년의 남·녀가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요즘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물지 마' 관광을 즐기러 나온 이들로 처음 만나 커콜이 되어 술이치고, 흡주하고 심지어 2차, 3차까지 이어진다.

이를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물어보려 하니 그들의 대답 더욱 가관, "내 나이 물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물지 마세요. 서글픈 나이가 한 번쯤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류계를 열사 강연식, 5·18, 한총련 출범식 등 굵직한 사건으로 5월은 어느때보다 뜨거운 학생운동의 달이 될 듯하다. 사진은 지난 16일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5월 투쟁 선포식의 장면 (오인택 기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7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다 음

- 대상: '97.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자
- 자격
 - 가) 공 통: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자
 - 나) 사 범 계: 교직과목 22학점,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상응과목 이수자
- 접수기간: '97. 5. 20(화) - 5. 23(금)까지
-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후 3년이 경과하면 무시험검정 자격이 소멸되며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사 범 대 학 장

97학년도 장학금 지급 결과

1. 장학금 지급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 고
교 내	2,263 명	2,056,587,500	
교 외	302 명	390,479,500	
합 계	2,565 명	2,450,067,000	

2. 교내장학금 학년별 지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 고
1. 학년	208 명	271,944,500	
2. 학년	637 명	526,598,000	
3. 학년	742 명	672,414,500	
4. 학년	676 명	588,630,500	
합 계	2,263 명	2,059,587,500	

3. 교외장학금 지급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장학종류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동 문 회	12	58 명	53,436,000	
장 학 재 단	32	99 명	153,526,000	
기 타	5	107 명	117,573,000	
합 계	63	38 명	65,944,000	

여성들의 신나는 체육대회

여성들의 친밀성의 공간/문화적 연대감의 형성

여/성/주간

이 기간에 벌어져 여성들만의 신나는 체육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성이 즐거운 사회를 위하여 신나게 놀아봅시다!

일시: 5월 29일 목요일

시간: 11시부터 연습하기, 2시부터 시작!

장소: 만해광장

자격: 동학의 모든 여학우/개인, 단체참가가능

신청경기: 고무줄 놀이/발야구/단체줄넘기

신청경기외에도 프리자전거, 줄다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다함께 어울러지는 놀이가 있습니다.

따올리는 체육대회후엔 뒷풀이가 마련되며, 참가자 전원 기념품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바랍니다

제 12대 총여학생회

업종별 취업설명회

97학년도 상반기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취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업 종	일 자	시 간	회사 및 강사명	장 소	비 고
금 용	5 20(화)	13 00-13 50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종현 대리)	90주년기념 문화관 책자 세미나실3	업종별 취업특강 자료집 및 취업관련 (한정분) 무료 배부
		14 00-14 00	대한생명보험 (이영하 인사복지부장)		
		15 00-15 50	제일은행 (이창림 노조위원장)		
공 직	5 21(수)	14 00-16 00	정부총무처 지방청 인사국장, 정책경리 과장, 생세관 과장, (교육부 5급) 강원현동문 (법무부 5급)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3	공직안내부 유인물배부
		13 00-14 50	금강개발산업 (전영소 이사)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3	업종별 취업특강 자료집 및 취업 관련 및 취업 관련 책자 (한정분) 무료배부
		14 50-15 40	롯데백화점 (장창우 인사계장)		
정 보 통 신 기 전	5 28(목)	15 40-16 30	(LG유통(일용재 부장)	원흥관 E102 강의실	
		13 30-14 30	대림정보통신 (신승은 부장)		
		14 40-15 30	삼성전자(교섭중)		

학 생 처 장

현대판 '맥베드' 맛볼 수 있는 젊은 연극제

본교 연영과 야심작... 상상력 발휘로 새로움 추구

"전 게임자입니다... 스티브 버튼을 부르세요."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이 왜 이렇게 돼버렸조. 원래 이러면 안되는건데. 맥디프 나뭇대로 하면 어떨게?"
 "아무리 게임이라도 너무 비인간적 이야!"
 "게임이 재미만 있으면되지 인간다운게 무슨 소용이야. 너 삭제되고 싶어"
 "삭제? 그러거 가지고 뭘 그러냐. 입력한 대로 할게"



본교 연극영화과 3학년 학생들의 '젊은 연극제' 출품 작품인 이 연극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세익스피어 원작인 '맥베드'다. 물론 세익스피어의 '맥베드'와는 많이 다르다. 이들의 맥베드는 컴퓨터 게임으로 재구성되었고 게임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노예가 되어있는 인간사에 대한 회의와 사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성중훈(연영3)군은 "젊은이다운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싶다"며 새로움을 추구하려 했던 그들의 의도를 표현한다.

이 '맥베드' 게임에는 컴퓨터 게임을 진행시키고 해설가의 역할도 하는 게임 자카라는 창조된 인물이 등장하여 극을 이끌어 나간다. 또한 영상매체를 이용, 무대뒤에는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가 등장해 관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 마이클 잰슨의 춤과 음악까지 나와 현대적 요소를 한껏 가미시켰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기법엔 죽은 뱀고우와 덩컨이 죽은 것을 억울해하며 다시 살아가는 등 엉뚱한 구석이 있다.

내일은 국립극장에서 '젊은 연극제' 공연이 있는 날로 지금이 마지막 리허설 시간이다. 그러나 실제공연과 무대만 다를 뿐 상이나 조명, 음향 모두 같다. 마지막 연습이라는 점이 배우나 스태프 모두를 초긴장 상태로 만든다.

이 연극에 참여한 스태프 배우 23명은 지난 12월부터 모여 연습을 시작했다고 한다. 연극영상학부 3학년 수업인 '연극제작실기 1'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이 모여 방학기간 내내 세익스피어 작품들을 연구하고 토론한 끝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선택했다고 한다. 곧이어 직접 결정한 '맥베드'의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 어무도 고치고 내용도 수정해 새로운 '맥베드'를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체력보강을 위해 운동장도 매일 뛰고 발레 강습도 받았고 매일 연습전에는 발성연습과 스피드칭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 후 인물의 성격을 구축하고 무대에서 각선 별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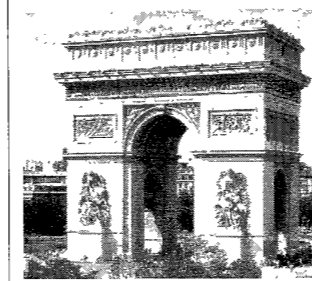
연습날인 오늘까지 온 것이다. 다섯달간의 연습과정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연습도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배우도 있었고 연습이 길어져 흥분 불은 짜장면을 먹어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젊은 연극제'를 통해 젊음의 패기와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움을 시도했고 그 시도의 과정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들의 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합동고 치렀을 때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아직 그들의 젊음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재공연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소극장에서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에 열린다. 그 동안 땀 흘린 성과를 거둬들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민서 기자)

배낭여행 기쁨만한 곳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의 야경



프랑스의 지방인 파리에 위치한 개신교



일본의 명산. 정상에 만년설이 쌓여있는 후지산의 절경



미국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 제작사

제2회 서울국제배낭여행 박람회

배낭여행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큰 도움 여행 앞서 유비무환의 자세 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배낭여행은 고생을 담보(?)로 값진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배낭여행은 젊은이들에게 낯설지 않고 인기 높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지구촌시대임을 실감케 됨에 따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이 배낭을 메고 지도를 옆에 끼고 해외여행하는 것을 보편화시켰다.

이런 흐름 속에 '제2회 서울국제배낭여행 박람회'가 올해도 개최되었다. 대전 엑스포와 같은 과학박람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꽃박람회와 이어 배낭여행박람회라는 조금은 낯선 박람회임에도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배낭여행은 보신관광, 과소비관광, 도박관광, 기생(?)관광 등 나라의 위신을 깎는 해외여행과는 다르게 더 넓은 세상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국제배낭여행박람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 직장인에게 놓치지 쉬는 정보를 전달해 준 축제의 장이었고, 외국에 나갈 때 지켜야 할 기본예절도 제시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 부지런한



삼선동 무역센터(KOEX)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서울국제배낭여행 박람회'의 모습

생활을 해라, 타국에 대한 문화상대주의를 인식해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녀라, 주체적인 생활을 하며 항상 한국인임을 잊지 말아라, 곤란한 경우를 생각해 철저히 준비해라"고 현대 드림투어 홍보 담당자는 말한다.

이제는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과 같이 남들 다 간다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배낭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외국문도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김치찌개도 해 먹을 수 있는 콘도텔 배낭여행,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

인 단체 배낭여행, 혼자만의 자유가 보장되는 호 텔 팹, 민 박 도 하고 일 도 하는 일석이조 의 배낭 패 키 지 의 그 중 류 또한 다 양 한 여행상품 들이 늘 어 가는

것만 보더라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서울국제배낭여행박람회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성의와 열정이 있는 관람객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여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상담받는 사람, 국제학생증이나 국제전화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비행기 예약을 위해 회원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신세대답지 않은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오승록(전주 우석대·2)은 "서울에 올라온 길에 평소 꿈꾸던 배낭여행에 대해 얻을 것이 있을거라 해서 참가했는데 배낭여행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연정은 꼭 배낭여행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들어보지만 했던 새로운 세계를 밟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없이 배낭여행을 떠난다면 후회만 안고 귀국할 수도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외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찾아, 진정한 나를 찾아, 사람의 향취를 찾아 떠나는 배낭여행... 인생의 소중한 체험이 될 배낭여행은 당사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민택 기자)

메이리

사과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사서삼경을 외워 쓰는 것이 아니라 입금이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조선시대의 과거에 대한 실록을 찾아 후세에도 후손이러한 손을 꼽을 광해군때를 살펴보자. 시험 문제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시급한 일' 즉 시무(時務)에 대한 물음이었으며 이에 대해 시험에 응시한 한 선비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정신 못 차리는 임금이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현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후보사태, 대선자금, 경제위기, 정치권의 부패 등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무수하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그리고 이 문제들중 가장 심각한 후보사태의 근본인인 현철씨는 누구의 아들인가? 아들의 허물이 자신의 허물이라면 이제 감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은 채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속죄양을 찾아 그에게만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다. 게다가 그의 정부 관료와 대선주자들 대부분도 YS의 측근들로만 구성 되어 그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용기를 내어 간언을 할 사람은 없다. ▲현철씨는 이제 구속되었으며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자금이 기왕에 밝혀질 것은 국민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며 야권과 학생진영에서는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하야'는 최후의 방법일 것이며 기대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YS는 최소한 단순한 사과, 즉 지난 번에 했던 단순한 담화문형식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훈)

작가

스승의 날

고대성 (20)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잘사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 이 오 박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안전성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화학 신물질 개발

정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석유화학 석유화학 원유수지 및 저분자, 우주항공 분야에 연가-아미, 프라스틱 등 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

정밀화학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위약물,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LG화학

LG화학 · LG석유화학 · LG실트론 · LG일라이드시그널 · LG오앤스코닝 · LG MMA